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바이,바이,  
바로!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Alastair Paterson

각색: Lyn Doerk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21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 바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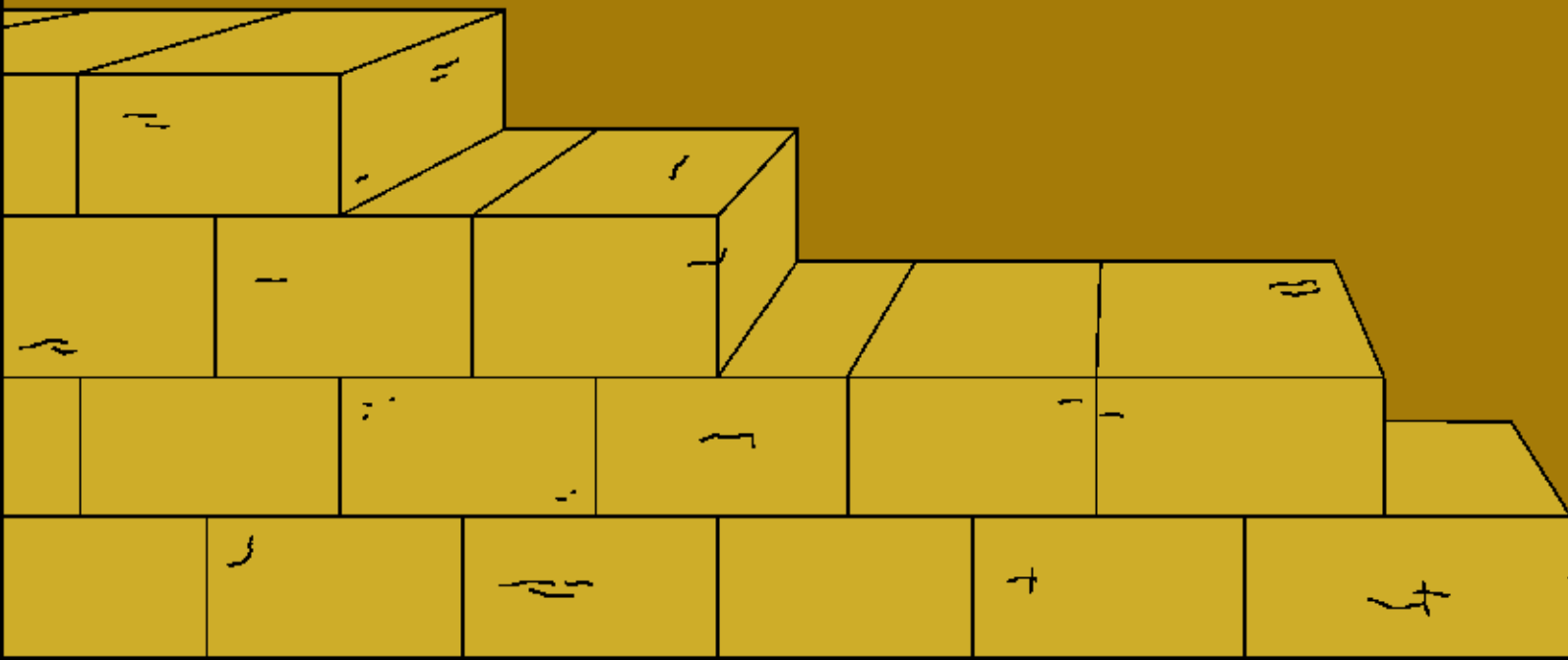
물론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더  
잔혹히 일을 시켜!”  
라고 바로는  
노예관리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어요.



“종들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줍게하되 벽돌의 갯수는  
이전과 같이 만들도록 지시하라.”  
이것이 바로의 새 명령이었어요.



바로의 간역자들은  
일부의 종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스스로  
짚을 모으면서 그  
전과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학대와  
고난에 대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그 때 모세는  
“하나님,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 내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냈어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적을 구하자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요.





“내 주술사들을 부르라.” 며 바로가 소리쳤어요. 이집트의 주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뱀으로 변했지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켜 버렸어요.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어보내기를  
거절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강에서 바로를 만났어요.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강을 치자 하나님은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모든 물고기들이 죽었지요. 물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여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했어요.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해 달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보냈지요.

모든 이집트의

집마다, 방마다,

부엌마다

개구리 떼로

뒤덮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바로는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이  
개구리 떼를  
없애도록  
기도해 다오.  
그러면 내가 네  
백성을 가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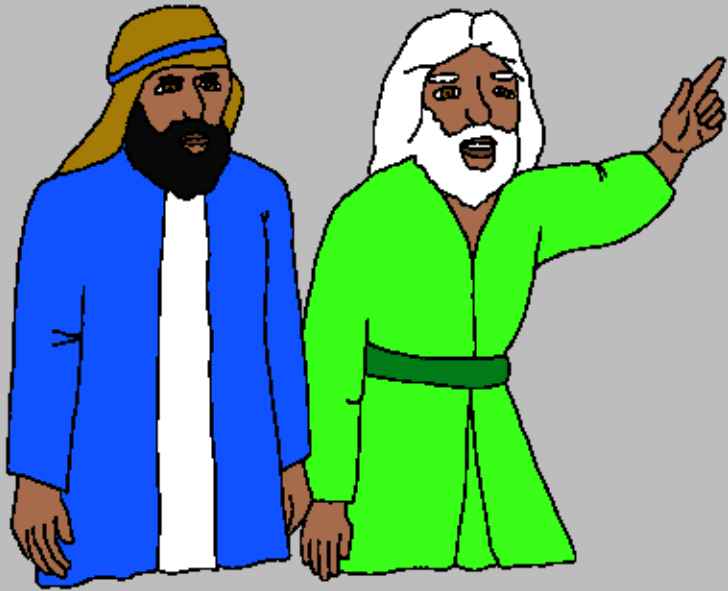


하지만  
개구리 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꿔  
종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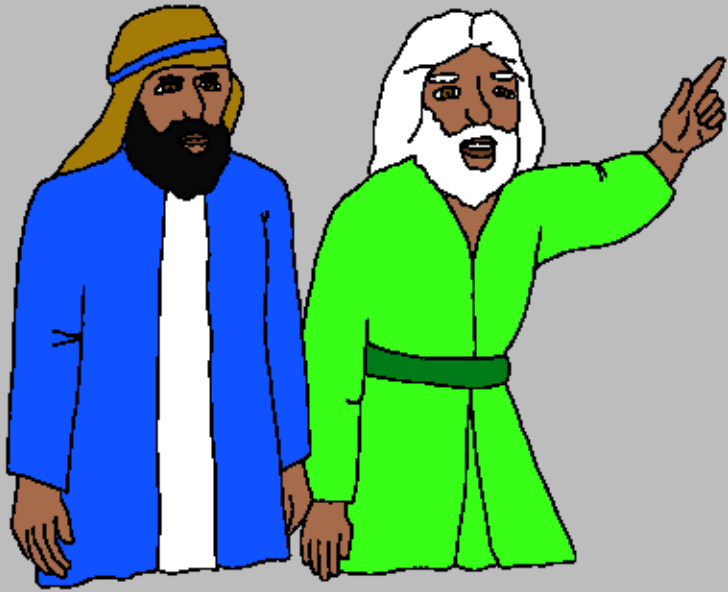
하나님이 이제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육축들은 간지러워  
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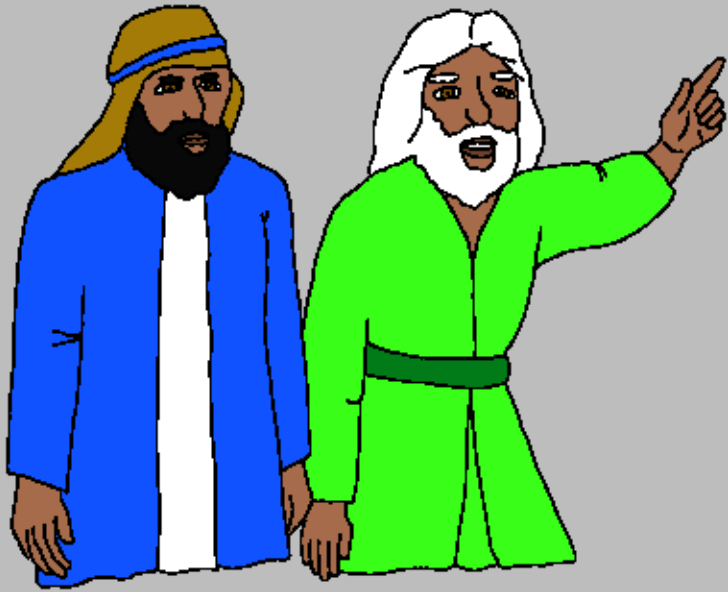
다음으로  
하나님은 파리 떼를  
보내셨어요. 그 후엔  
애굽의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 다  
죽고 말았어요.





또 다시 하나님은  
독종이라는 질병을  
보내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하였지요.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어  
모든 풀과  
야채들을 먹어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엔 하나님이  
이집트에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지속되어  
아무 것도 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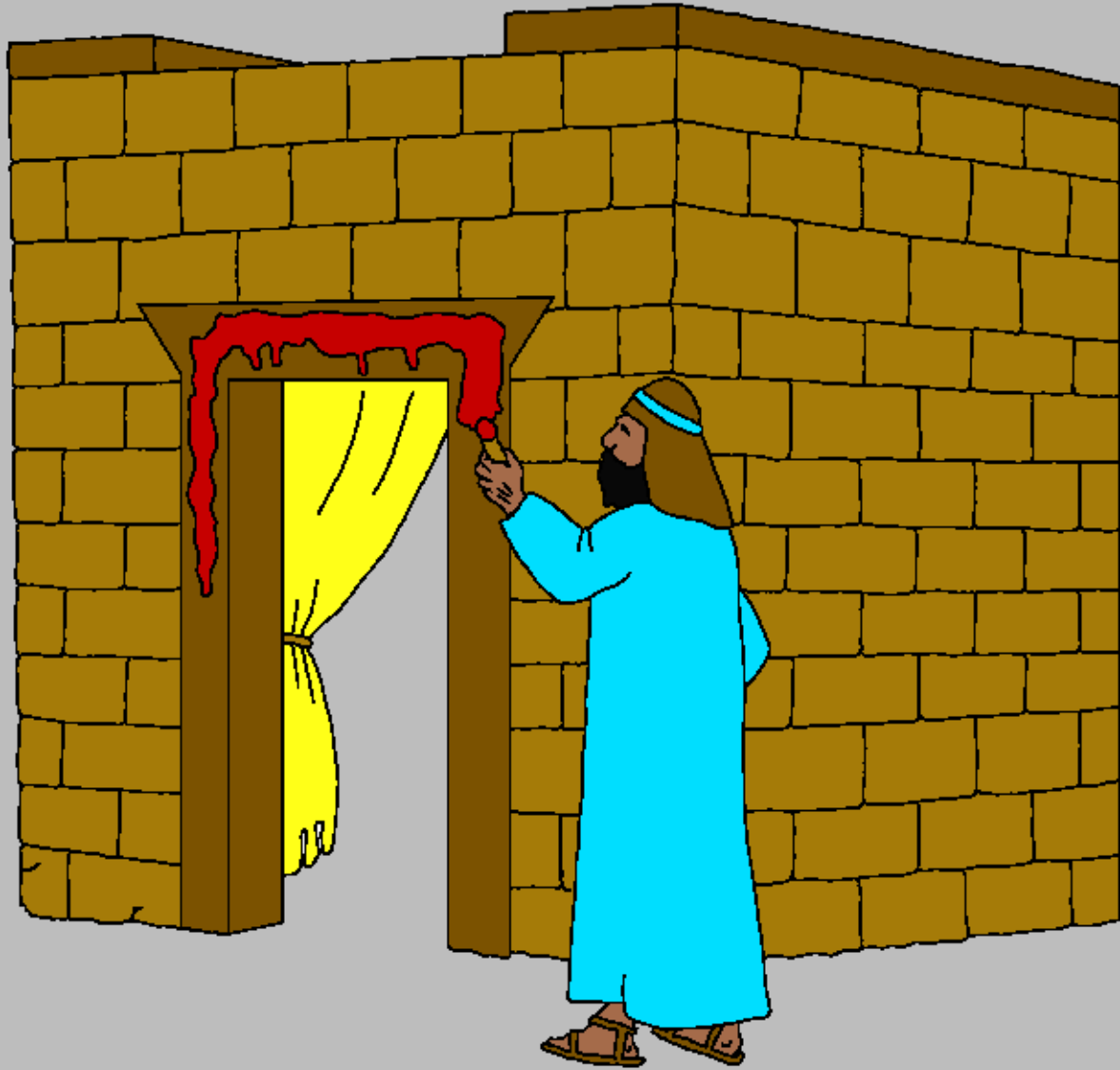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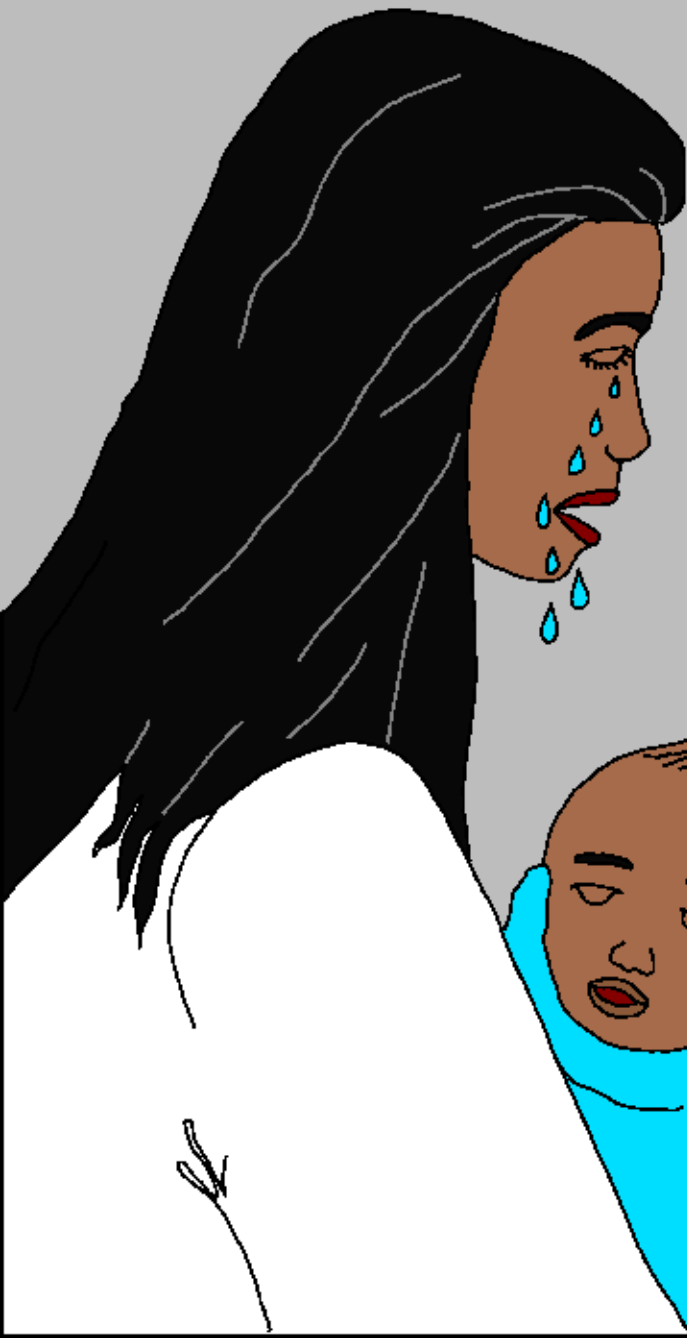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보내리라.  
밤중에 모든  
사람의 장자와  
육축의 처음  
난 것들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밤중에 온  
이집트에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는

그 나라의 모든 집에  
적어도 한 명씩은  
사망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드디어 바로는  
“가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며 모세의  
요구를 허락했어요.





재빨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경계 밖으로 빠져  
나갔지요.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지나가고 바로와 그의  
백성만 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430 년간의

이집트  
종살이  
후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마음을 바꿔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을 쫓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벽과 바다  
사이에 포위하게  
되었어요.



이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며  
바다로 가서 그의 팔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다  
속

가운데에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셨지요.



바로 의 군대는 홍해 바다로  
뛰어 들어가며 '이제  
그들을 붙잡으리라.  
'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덮어  
이집트의 군대가 모두  
몰살되게 하셨지요.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바이,바이, 바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 장 -15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